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5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가을호(제 41호)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 (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5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가을호(제 41호)

목차



기상청장 기고

- 05 / 단풍, 자연이 보내는 계절의 메시지
- 0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출발점, 기후변화 상황지도
- 09 / 첫눈, 설렘과 함께 알리는 겨울의 시작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11 / 9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1 / 10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2 / 11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46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Pixabay



서비스

- 49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 50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5년 11월 28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백은희(기획운영과), 이해정(기획운영과), 추영욱(예보과), 정민음(관측과), 김지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자단 김기창(기후서비스과), 김민희(기후서비스과), 김아현(예보과), 김정수(기후서비스과), 김효원(관측과), 남민우(관측과), 박민규(관측과), 박연화(기획운영과), 박현진(기후서비스과), 백승우(예보과), 심준수(관측과), 윤자인(기후서비스과), 이정섭(관측과), 이해정(기획운영과), 임나영(예보과), 임시찬(기획운영과), 임유진(기후서비스과), 정민음(관측과), 최경연(예보과), 추영욱(예보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단풍, 자연이 보내는 계절의 메시지

일반적으로 단풍은
북쪽에서 먼저 시작된다

'색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계절' 하면 어느 계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아무래도 파란 하늘 아래 단풍이 곱게 물든 가을이지 싶다. 시대를 풍미한 화가들도 가을의 색채는 놓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여러 화가가 가을을 주제로 한 작품을 남겼는데, 클로드 모네는 센강을 따라 이어지는 주황빛 단풍을 특유의 감각으로 〈아르장퇴유의 가을〉에 담았고, 폴 고갱은 작품 〈아를의 알상프레인〉에 낙엽의 정취를 대담한 붉은 터치로 표현했다. 화가들이 담아낸 가을은 낭만을 넘어, 빛과 시간, 생명과 변화가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단풍은 그림처럼 멈춰 있는 순간이 아닌 '과정'이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광합성을 담당하던 엽록소를 서서히 분해한다. 그 아래에 가려져 있던 노란 카로티노이드가 드러나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지면 붉은 안토시아닌이 생성된다. 이는 잎을 붉게 만들며, 단순히 색을 내는 역할을 넘어 자외선 차단, 활성산소 제거, 해충 방지 등 나무의 생존에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단풍은 북쪽 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어 점차 남쪽으로 내려간다. 즉,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계선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는 지구의 기울어진 자전축 때문으로, 회전축이 기울어져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의 차이가 발생하고 온도 차이까지 만들어 낸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름에는 태양이 높고, 겨울에는 태양이 낮다'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단풍이 물드는 시기는 기온, 일조, 강수량 등 여러 요인의 정교한 조합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일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은 단풍의 시작을 당기는 중요한 신호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단풍이 시작되는 시기가 불규칙해졌다.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경향 속에서도, 환절기의 큰 일교차 때문에 예상보다 빨라지는 사례도 보인다. 이러한 변동성은 예측을 어렵게 만들기에, 체계적인 관측이 필요하다.

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기상청은 매년 전국 21개 산의 단풍 시작일과 절정일을 관측해 '유명산 단풍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첫 단풍은 산 정상으로부터 약 20%가 물들었을 때, 절정은 약 80%가 물든 상태를 뜻한다. 평년(1991~2020) 기준 단풍 절정일은 오대산이 10월 15일로 가장 빠르다. 설악산은 10월 17일, 지리산은 10월 23일, 북한산과 한라산은 10월 28일이며, 무등산과 내장산은 11월 4일, 두륜산은 11월 10일로 가장 늦다.

단풍현황을 참고하면 단풍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초에 오대산을 찾는다면 첫 단풍 직후이므로 정상 부근에서 짙은 단풍을, 하산길에서 초록과 노랑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길 수 있다. 반면 11월 초에 내장산을 방문하면 어디에서나 붉게 물든 장관을 볼 수 있다. 다만 변동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시기는 그해 제공되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산악기상정보확인도 중요하다.

가상청 날씨누리에는 전국 주요 산의 산악 날씨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산의 기온, 강수 확률, 바람 세기, 체감온도 등을 미리 확인 하면 날씨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가을 산은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에, 방풍복과 여벌의 겉옷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산에서는 체온유지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새벽 산행이나 장시간 체류 시에는 보온 대책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은 평지보다 기온 하강 속도가 빠르고, 새벽이나 아침에는 기온이 이슬점에 도달해 안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안개의 미세한 물방울이 바위 표면이나 낙엽, 흙 등에 붙어 수막을 형성해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실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단풍은 가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작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온과 일조, 강수 패턴, 이상기후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연의 보고서다. 붉게 물든 산속을 걷는 일은,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동시에 지구가 보내는 계절의 메시지를 읽는 행위이다. 울가울,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공기를 만끽하며, 단풍이 들려주는 기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출발점, 기후변화 상황지도

우리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자연의 회복을 도와야

시인 김수영은 "풀이 바람보다 먼저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라고 노래했다. 이는 거센 바람 앞에서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자연의 회복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의 바람은 더 이상 자연의 생명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과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의 회복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제는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그 회복을 도와야 할 때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완화'와 '적응'이 있다.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를 늦추는 노력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 교통수단 도입, 에너지 효율화와 같은 정책과 실천이 여기에 포함된다.

적응은 이미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고,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회·경제 구조를 조정하는 일이다. 폭염 속에서 그늘막과 무더위 쉼터를 확충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관리와 배수시설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그 예이다.

완화와 적응은 둘 중 하나가 선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동반되어야 할 과제이다.

어느 하나만으로 기후위기의 파고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는 변화를 늦추는 동시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피해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후위기의 현주소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상청이 개발한 '기후변화 상황지도'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기온, 강수량,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 지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이다.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얼마나 상승했는지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얼마나 상승할지를 보여준다.

또한, 부문별 방재·안전 기준에 따른 극한기후지표(확률강우량, 재현빈도 등)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학적 관측자료와 기후모델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기후위기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는 '진단서'이자 '나침반'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취약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기업은 기후리스크를 관리하며 지속가능한 투자를 설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일상에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점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특정 지역이 폭염 발생이 잦아지는 곳으로 나타난다면,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무더위 쉼터와 의료 인프라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집중호우 위험이 큰 지역이라면 지도를 근거로 배수시설 보강이나 주거지 이전 같은 장기적 대비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학적 근거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는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세계기상기구(WMO)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수십 년이 인류의 기후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이러한 경고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보여주는 도구이다. 이를 통해 모두가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해 나간다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 세대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기후변화 상황 지도는 현재의 위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 전반의 결단이 함께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기상청은 그 중심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고도화하고, 정부 · 지자체 · 기업 ·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넓혀갈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



@Pixabay

첫눈, 설렘과 함께 알리는 겨울의 시작

첫눈은 겨울의 시작을
보여주는 현상인 동시에,
겨울철 안전관리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가까워지면 많은 이들이 "올해 첫눈은 언제 내릴까?" 하며 첫눈을 기다린다. 첫눈이 오는 날 만나기로 약속한 누군가를 떠올리기도 하고, 새하얀 눈길을 걷는 즐거운 상상에 빠져도 본다. 이처럼 첫눈은 낭만을 선사하는 아름다운 자연 현상이지만, 한편으로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생활 속 안전 준비를 촉구하는 중요한 신호이기도 하다. 첫눈 속에 담긴 과학적 의미와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상학적으로 첫눈은 유인 기상관측소에서 관측자에 의해 눈이 처음으로 공식 관측된 것을 의미한다. 지상에서 눈송이가 확인되면 첫눈으로 인정하며, 잠깐의 진눈깨비나 금세 녹아버리는 눈도 기록에 포함된다.

기상청 평년값(1991~2020)에 따른 첫눈 관측일은 서울과 대전이 11월 20일, 광주와 부산은 각각 11월 29일, 12월 23일 무렵이다. 하지만 첫눈 관측일은 해마다 기온과 대기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져, 평년보다 빨라지거나 늦어지기도 한다.

첫눈이 내린다는 것은 앞으로 추위와 함께 대설, 한파, 결빙 등 각종 겨울철 위험 기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첫눈은 겨울의 시작을 보여주는 현상인 동시에, 겨울철 안전관리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눈이 내리면 낮은 기온 때문에 도로 표면이 결빙되는 '도로살얼음'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되며, 출퇴근길에는 교통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사고의 위험을 높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기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설이나 한파가 예상되면 신속히 특보를 발표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며, 특히 겨울철 교통안전 지원을 위해 제설대책기간(11월 15일~3월 15일)에는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를 제공한다.

도로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관심', 높을 때는 '주의', 매우 높을 때는 '위험'의 3단계로 정보를 제공하며, 내비게이션과 도로 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가 이동 중에도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파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한파 영향예보'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추위의 강도를 알리는 정보를 넘어, 기온 하강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 한파에 주로 영향을 받는 6개 분야(보건, 산업, 시설물, 농·축산업, 수산업, 기타)의 위험 수준과 이에 따른 구체적 대응 요령을 제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 분야에서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노약자의 외출 자제와 난방 점검을 강조하고, 농·축산업 분야에서는 농업 보온시설 보강을 권고한다.

위험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영향예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상황에 맞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파가 예상되는 날의 전날 오전 11시 30분부터 '기상청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겨울철 안전을 위해 개인과 기관 모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운전자는 눈길에서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보행자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해 낙상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난방기기와 수도관 동파를 미리 점검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제설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기상특보 발표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첫눈이 언제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올해도 첫눈은 분명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신호가 될 것이다.

첫눈의 설렘을 즐기는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안전의 메시지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상청은 더 정확한 예보와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올겨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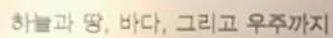
제39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입선
살포시 골목을 감싸주고(김상수)



2025.9.1.

라오스 기상청 기상관측실무자 대전지방기상청 방문

라오스 기상청 직원들이 2025년 재해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실무자과정 연수 일정 중 대전지방기상청을 방문하였다. 라오스 기상청 직원들은 기상홍보관 관람과 기상캐스터 체험 후, 대전청 지역예보센터에서 지방청의 예보업무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어 기상관측차량을 직접 살펴보고 관측차량의 임무와 역할, 운영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방문이 라오스 기상청 직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자유분방한정기 를 운영하여
경기 중에 발표하는 지평 3000 000
입자의 농도를 실시함으로써 촉진

가장, 가장, 습도, 바람 등의 연속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로 바꾸는 변환과도 관련. 자료에서 각 X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

전국 공청에 건축 강의를 실시하여
현장가 및 학생에 필요한 실무로
가시게 하는 것은 가장 중요 건축

한글로 된 글자를 알리는
색깔은 주로 한 자씩으로 나뉘는
가운데글자만 알리는 색깔을 동시에
반복한다. 기호

전남에 100여개 농·수산물 생산·유통 협회
지자체와 협조 및 민·관·학 협업체 구축
2012년 10-2013년 1월

전국 각 시·군·구별 설치된 지점 7곳
전국 총면적 772.70㎡, 숲도, 생태
문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1930
1931
1932

수출입통계제도개선사업의 필요성

예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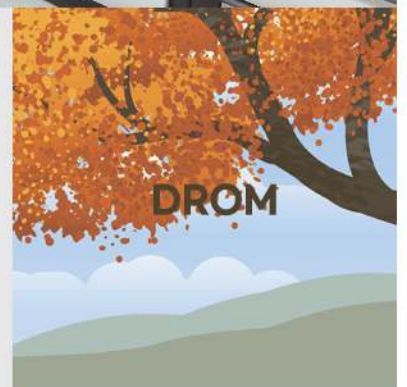
2025.9.1.~9.9.

해아림 관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노후된 해아림 관사의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직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사는 실내 도배와 장판을 전면 교체하고, 화장실은 타일과 위생기구를 포함하여 일체 철거·재설치 하였으며, 보일러실 벽면 도색을 보수하여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총 3개 호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보수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9.9.

2025년 보령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지원



대전지방기상청은 과학적 근거 기반 지역별 기후학적 특성이 반영된 보령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2026~2030)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를 운영하였다. 충남권 기후변화분석정보 사용자 매뉴얼에 대해 상세 설명하였고, 과거 검토사례를 소개하는 등 지자체에서 적응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찾아가는 간담회 외에도 상시적으로 Help-Desk를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지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하면 안내가 가능하다.





2025.9.9.~11., 9.29.~30.

논산시 축산냄새 기상 영향 예측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현장 기상 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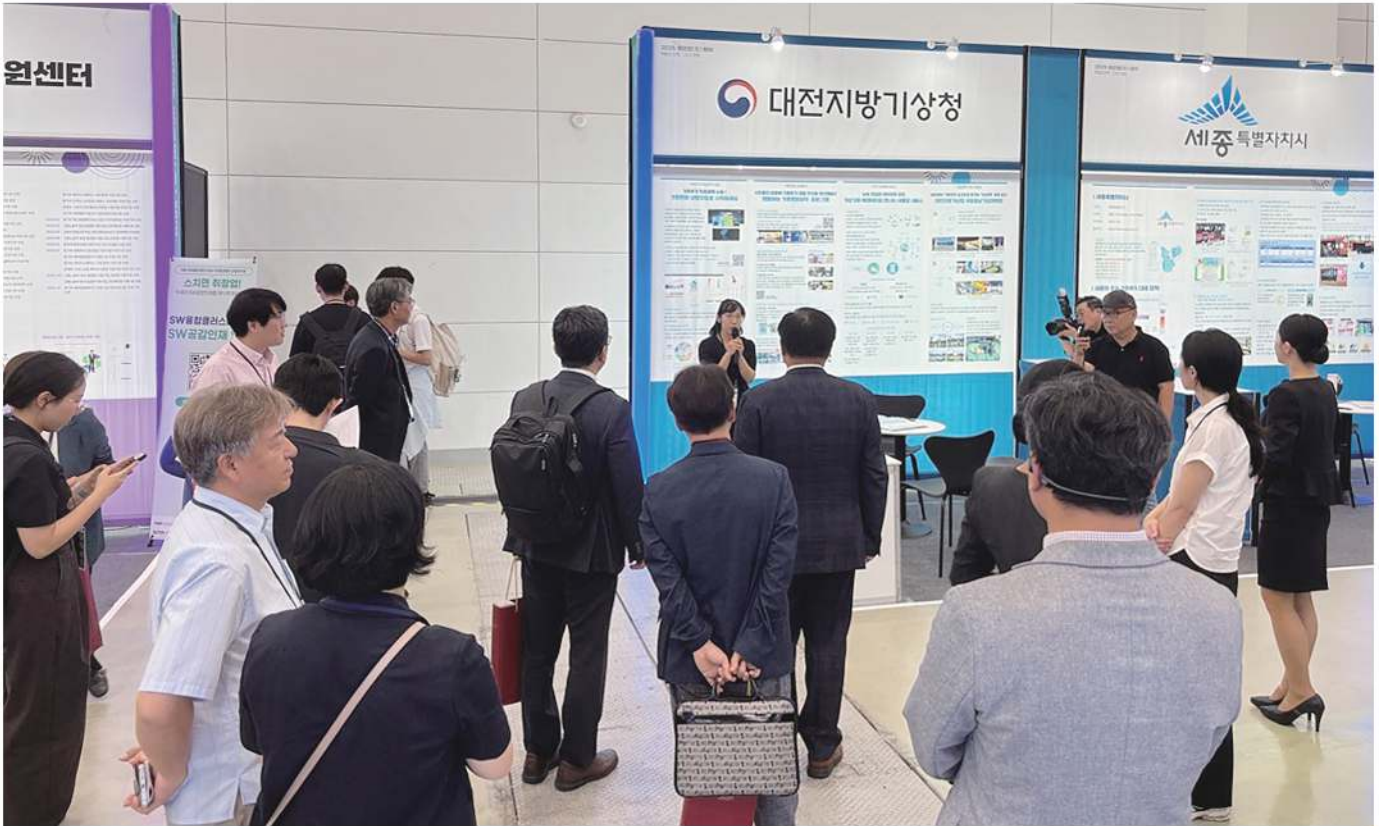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논산시 축산냄새 기상 영향 예측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해 논산시 광석면 (9.9.~9.11.)과 연무읍(9.29.~9.30.)에서 기상관측차량을 활용한 현장 관측을 실시하였다. 이번 관측을 통해 확보한 지상 및 고층 관측자료들은 비교·검증 자료로 사용되어 논산시 축산냄새 기상 영향 예측 서비스 정확도 향상과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였다.



2025.9.10.

해양기상정보 수요자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대전지방기상청은 해양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다양한 해양기상정보 활용 방법을 설명하고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정책 현장을 방문하여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서비스 개선사항 등 실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한 해양기상정보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다.



2025.9.10.

「에코업(業) 페어」 정책홍보부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에코업 6대(기후변화적응, 온실가스감축, 물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 중 기후변화적응 분야에 참여하여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상청의 역할과 기후변화 이해확산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기상청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진로 컨설팅도 진행하여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홍보부스 운영을 계기로 미래세대에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을 전달함으로써 기상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2025.9.11.~10.26.

국립과천과학관 협업, 「싸이팝(Sci-POP)」전시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립충남기상과학관에서 지역 과학 문화 확산 및 기상과학관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과천과학관과 협업하여 싸이팝 특별 전시를 운영하였다. 싸이팝(Sci-POP)은 기초과학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과천과학관에서 개발·제작한 이동형 체험전시물이다.

과학관 인기 콘텐츠인 대형 용오름과 연계한 소용돌이 전시물부터 빛의 산란을 보여주는 편광카드 등 12종을 전시하여 지역 기상과학관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2025.9.11.~9.12.

2025년 논산시 청소년 진로박람회 「꿈빛나래 페스티벌」 부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기상청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해 2025년 논산시 청소년 진로박람회 「꿈빛나래 페스티벌」에 참여하였다. ‘기후행동 넷제로’ 보드게임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체험 부스에 논산시 초·중·고등학생들이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기상·기후 분야 진로 안내와 기상청 입사 방법 등의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미래 기상 인재들의 기상청 업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2025.9.15.

관측자료 공동활용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국지적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관측자료 공동활용 필요성이 증가에 따라 대전·세종·충남 관측시설 7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관측자료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지원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관측시설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관측자료 생산으로 위험기상 시 예보관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2025.10.1.

2025년 추석 위문활동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2025년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위문활동을 실시하였다. 위문 대상은 그룹홈 시설의 열매마을의 집으로, 대전청 봉사동호회인 사랑나눔회의 정기후원대상기관이다.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은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성금과 쌀, 세제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활동을 통해 전한 따뜻한 마음이 우리 주변 이웃에게 기쁨이 되었기를 바란다.





2025.10.13.~10.24.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활용 폭염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 만족도 조사



대전지방기상청은농촌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공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활용 폭염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의 서비스 개선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및 농촌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무더위 쉼터를 방문하여 농촌 어르신을 대상으로 올해 운영한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접근성, 피해 예방 효과 및 개선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2025.10.18.

지역민과 함께하는 「제3회 기상과학 페스티벌」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립충남기상과학관에서 지역 기상문화 확산 및 친근감 형성을 위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기상과학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23년 과학관 개관 이후 가을철 지역민과 소통의 장을 위해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날 행사는 ‘위 더(with the)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주제로 과학관 무료 개방, 기상과학 퀴즈, 과학 마술 등을 선보여 과학을 재밋고 유익하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지역 관계기관인 서산버드랜드, 홍성군 가족센터, 조양미술관 등에서도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였다.



2025.10.18.

「2025 차 없는 거리에서 Green그린 세종환경교육한마당」 기후변화 체험부스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민의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과 기후위기 대응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문화 행사 「2025 차 없는 거리에서 Green그린 세종환경교육한마당」에 참여해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탄소중립 약속 바람개비 만들기’, ‘기후변화 기상캐스터 체험’ 등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기후변화 이해확산에 이바지하였다.



2025.10.20.~10.21.

2025년도 하반기 「대전지방기상청 청렴·소통 워크숍」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부서 및 직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청렴문화를 조성하고자, 10월 20~21일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지역인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청렴·소통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부서별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청렴유적지인 도담삼봉과 단양 지질공원의 대표 명소인 고수동굴을 체험하였다. 이틀간의 워크숍은 직원 간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 되었다.





2025.10.22.

2025년 산불진화 통합훈련 기상관측차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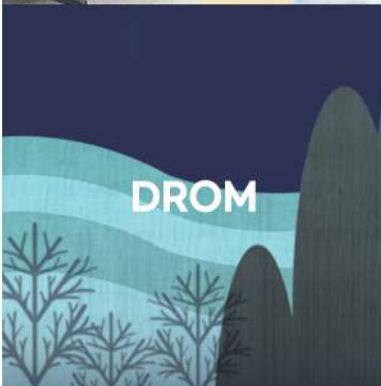
DROM

대전지방기상청은 산림청·충청남도·공주시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산불 진화 통합훈련에 기상관측차량을 투입하여 현장 기상상황 및 기상정보 전달 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전시 부스에서 훈련 참가자들에게 기상관측차량의 존재와 역할을 홍보하고, 이러한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산불 및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기상관측차량의 활약이 기대된다.

2025.10.23.

방재기상플랫폼 활용 워크숍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지역 관계기관 방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방재기상플랫폼 활용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여름철 충남권의 기후특성과 레이더 영상 활용 방법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PC를 제공하여 방재기상플랫폼을 직접 활용하는 실습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상정보의 이해력을 높이고 시스템 활용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5.10.27.

「2025년도 관·학·군·연 기상기술교류 워크숍」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위험기상 대응 방안 모색 및 기상업무 선진화를 위하여 관·학·군·연 기상기술교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 14회 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대전지방기상청,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공군기상단, 한국수자원공사, 수치모델링센터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지역 환경에 맞는 기상기술을 발전시키고,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5.10.28.

2025년 하반기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현지 합동점검

대전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호우, 황사 등 위험기상을 감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서해 최서단 북격렬비도에서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관측기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월 28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대전(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반시설, 관측장비 등 시설관련자 16명이 입도하여 기상 관측장비와 발전시설(태양광) 등을 점검하였다. 하반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도 추진사업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25.10.31.

2025년도 지역기상융합서비스 개발사업 최종보고회 및 정보사용자협의회(3차)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논산시·전북혁신도시 축산냄새 기상 영향 예측 서비스」 개발사업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10월 31일 개최하였다. 본 서비스는 기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수요지역 일대의 축산악취 확산 및 그에 따른 민원 발생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보고회는 서비스 개발 결과를 점검하고 수요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본 서비스를 통해 지역민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



2025.11.4.

2025년 유명산 단풍현황 정보 제공을 위한 계룡산 단풍 절정 관측

대전지방기상청은 대전·세종·충남 지역의 대표 유명산으로 공주 계룡산을 지정해 매년 단풍 시작과 절정을 관측하고 있다. 단풍 관측은 계룡산 동학사 자연관찰로 시작 지점의 단풍나무 세 그루를 살펴 단풍 변화를 확인하고, 동학사에서 쌀개봉 방향의 전경을 바라보아 산 전체의 단풍 변화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올해 계룡산의 단풍은 10월 24일에 시작되어 지난해보다 7일 늦게 관측되었으며, 절정 시기는 11월 4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유명산 단풍 현황은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1.6.

대전지방기상청 합동소방훈련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2025년 유성소방서 도룡119안전센터와 11월 6일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 하였다. 화재시 대피방법, 안전한 소화기 사용 및 소화전 조작에 대하여 실연을 하였고, 화재경보와 초기진압등 화재발생에 따른 위급상황시 지휘통보와 구조훈련에 대하여 훈련을 하였다. 합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전지방기상청 자위소방대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



2025.11.12.

2025년 겨울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11월 12일 방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겨울철 위험기상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해 방재기상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겨울철부터 충남권에 시범운영 예정인 대설 안전안내문자에 대해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25년 겨울철 달라지는 주요 방재기상대책 및 '26년 신규 주요 기상정책 등을 소개하였다. 겨울철 위험기상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과 소통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겨울철 방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충남권 기상재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2025.11.12.

광복 80주년 계기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대전지방기상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연고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에 동참하였다. 참배대상자인 故김찬규 지사는 이조판서 예안 김백암 선생 11대손으로, 노백린 장군이 보낸 모금위임장에 따라 군자금을 조달하다가 7년의 옥고를 치르며 순국하셨다.

참배의 시간을 통해 애국선열을 추모하며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5.11.14.

2025년 「기후위기 대응 콘테스트」 시상

대전지방기상청은 미래세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대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기후위기 대응 콘테스트」를 개최하였다. 기후변화과학 교육 참여 학생 850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 소감문 작성 및 탄소흡수 나무 키우기를 진행하였다.

그 중 참여한 11개 학급(총 232명) 대상으로 참여율 및 성실성 등 평가를 통해 우수학급 3개소를 선정하여 대전지방기상청장상을 수여하였다.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 강화 및 학교 중심 탄소중립 실천 참여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2025.11.14.

2025년도 하반기 「나의 간부 찾기」 시상식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신입 및 저연차 직원 간 친밀감 형성과 조직적응 지원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마니또 프로그램인 「나의 간부 찾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9월 제비뽑기를 통해 간부를 선정하고, 10월 한 달간 개인별 간부를 대상으로 네 번의 미션활동을 수행하였다. 운영 결과, 참여자 23명 중 21명이 미션을 완수하였고, 13명이 본인의 간부를 찾았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부서를 넘어 동료 간에 즐거운 추억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5.11.15.

국립충남기상과학관 「기상 · 기후과학 골든벨」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립충남기상과학관에서 지역 기상과학 인재 발굴 및 기상지식 전파를 위하여 2025년 「기상 · 기후과학 골든벨」 행사를 11월 15일 개최하였다. 기상 · 기후 정보에 대한 골든벨 예상 문제를 사전에 공지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 대상별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기상과학에 대해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단순 퀴즈 대회를 넘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기상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과학관은 지속적으로 기상과학 문화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을 발굴 · 운영하며, 12월에는 측우기 전시물을 신규로 설치하여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11.19.

2025년도 하반기 소속기관 관측업무 지도점검

대전지방기상청은 2025년도 하반기 관측업무 점검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상관측장비의 작동 상태, 유지보수 현황, 관리 및 운영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관측업무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를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병행했으며, 관측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번 점검과 기술지도를 통해 관측업무 담당자의 역량 향상은 물론, 대전·세종·충남 지역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5.~11.26.

관측업무개선발표회 참가 및 장려상 수상

대전지방기상청은 고품질의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관측기술 개발 및 공유를 위해 지난 11월 25~26일 여수에서 개최된 관측업무개선발표회에 참가하였다. 기상청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대전지방기상청은 ‘극한호우에 의한 전도형 강수량계 물넘침 개선’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속적인 관측기술 개선을 통한 신뢰도 있는 기상관측자료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11.26.

2025년 사랑의 연탄나누기 봉사활동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연탄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대전시 동구에 거주 중인 차상위 계층 2가구에 연탄 600장과 쌀, 휴지, 세제 등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대전시지원봉사연합회와 연계하여 실시한 이번 활동으로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에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7.

2025년 하반기 충남권 언론인 소통간담회 및 기상강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11월 27일 충남권 언론인을 대상으로 ‘대전·세종·충남지역 언론인 소통간담회 및 기상강좌’를 개최하였다. 충남권 대설 안전안내문자(CBS) 발송 시범운영, 한파 영향예보 취약계층 대상 직접 전달체계 강화 등 2025년 달라지는 기상정책과 올 겨울철(12~2월) 기상전망을 공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겨울철특성 및 위험기상의 이해에 관한 기상강좌를 함께 실시하면서 위험기상 정보가충남권지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기상청과 언론과의 소통·협력 체계를 공고히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극값 및 계절관측

9

SEPTEMBER

9월 상순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9. 5. 서산 2위 27.7℃, 홍성 2위 27.6℃, 대전 3위 28.1℃, 보령 3위 27.7℃
세종 3위 27.4℃
9. 6. 부여 2위 28.0℃, 홍성 3위 27.3℃, 대전 4위 28.0℃, 금산 5위 26.9℃

9월 상순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9. 1. 대전 5위 33.4℃
9. 5. 세종 3위 33.1℃, 홍성 3위 33.0℃, 대전 4위 33.6℃

9월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9. 1. 천안 2위 24.2℃

9월 10분 최다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 9.16. 서산 2위 23.9mm, 대전 2위 22.2mm, 부여 2위 17.7mm, 홍성 2위 16.7mm
- 9.17. 세종 1위 17.7mm, 금산 4위 16.5mm, 보령 5위 17.0mm

9월 1시간 최다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 9.13. 부여 4위 41.9mm
- 9.17. 금산 5위 38.7mm

9월 상순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9. 7. 부여 5위 71.5mm, 금산 5위 70.3mm

10

OCTOBER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10.11. 세종 3위 22.7℃, 천안 3위 22.2℃, 보령 4위 23.6℃, 대전 5위 23.1℃

10월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10. 9. 보령 1위 30.8℃

10월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10. 5. 대전 1위 20.5℃, 금산 1위 20.4℃, 세종 1위 20.1℃, 서산 2위 20.4℃
홍성 3위 19.8℃, 천안 3위 18.8℃

10. 6. 금산 4위 18.8℃

10. 8. 세종 3위 19.2℃, 천안 4위 18.7℃, 부여 4위 19.6℃

10.11. 홍성 4위 19.5℃, 보령 5위 20.2℃

10.12. 금산 5위 18.7℃

10월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10.13. 세종 3위 45.9mm, 대전 5위 58.3mm

10월 중순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10.13. 대전 1위 58.3mm, 보령 1위 52.2mm, 세종 2위 45.9mm

10.15. 보령 1위 52.2mm, 홍성 2위 29.4mm, 세종 3위 33.7mm
천안 4위 44.6mm

10.16. 금산 4위 27.4mm, 세종 4위 26.9mm

11

NOVEMBER

11월은 극값 경신 기록 없음



식물계절

은행나무

단풍 시작 11. 7. (작년대비 6일 늦음, 평년대비 15일 늦음)
단풍 절정 11.10. (작년대비 3일 늦음, 평년대비 9일 늦음)

단풍나무

단풍 시작 10.31. (작년대비 7일 빠름, 평년대비 6일 늦음)
단풍 절정 11.16. (작년대비 4일 빠름, 평년대비 13일 늦음)

유명산 단풍 (계룡산)

단풍 시작 10.24. (작년대비 7일 늦음, 평년대비 8일 늦음)
단풍 절정 11. 4. (작년과 같음, 평년대비 8일 늦음)

기후계절

첫서리

10.28. (작년대비 9일 빠름, 평년과 같음)

첫얼음

11. 3. (작년대비 4일 빠름, 평년과 같음)

※ 기후계절 관측(첫서리, 첫얼음, 첫눈)은 대전지점 자료 제공

※ 홍성 :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전자문서(PDF)로
무료 발급 받으세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5. 11. 현재)

1. ASOS(8소)

대전(133), 세종(239),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2. AWS(40소)

정림(378), 오월도(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북격렬비도(229), 송악(493), 호도(578), 대산(606), 근흥(607), 삼시도(609)
홍성죽도(610), 공주(612), 서천(614), 논산(615), 당진(616), 직산(617), 청양(618), 태안(627)
예산(628), 유구(632), 정안(633), 아산(634), 양화(635), 계룡(636), 신평(637), 연무(644)
서부(645), 춘장대(646), 대천항(657), 만리포(658), 계룡산(659), 안도(666), 웅도(667)
외연도(669), 정산(691), 원효봉(694)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